

장성군, 26억원 투입 ‘산불예방 맞춤형 숲가꾸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 목표 1000여ha 규모 4가지 가꾸기 사업 나무밀도 조절·불길 확산 방지 구조 문화유산·사찰 주변 내화수종 식재 숲의 경제성·공익성 확대 집중 활용

전라남도 장성군이 산림재난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26억원을 들여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에 나선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1000여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어린이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공익림 가꾸기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다. 장성군은 소나무 숲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가지치기·숙아베기 작업을 통해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고찰 백양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등 주요 문화유산과 사찰 주변에는 내화수종 보호숲을 조성해 대형산불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사업 면적 기준 가장 넓은 영역의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로 650ha 규모다. 편백, 상수리, 목백합 등 유용 수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경쟁 수목을 제거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1~3년생 어린나무를 대상으로

햇빛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풀베기, 덩굴제거 작업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공익림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 3월 발생한 전국규모 산불은 산림 10만여ha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산림재난에 강한 숲을 만들어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숲이 지닌 경제성과 공익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함평읍,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1회 정기 방문·생활지원 병행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3일 함평군 함평읍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고독사 위험 가구 돌봄을 위해 지역 민간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정기적인 방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독사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로 최근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함평읍은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업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주 1회 정기 방문하고 반찬과 과일 등 먹거리 전달, 말벗 등 정서적 돌봄도 병행할 예정이다.

명절 등 주요 시기에는 대청소와 방역 서비스 등 생활환경 개선도 병행해 심신 건강을 함께 돌봄 방침이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동참해 주신 키즈테이블 나민선 대표, 희희낙락 카페 유가희 대표, 사회적기업 ㈜영수환경 유성현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서적·생활적 지원이 결합된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함평군, 18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함평군이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3일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접수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확산을 초기에 차단해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7월~9월 집중 방제 기간에 2개 사업, 총 6875ha 벼 재배면적에 대해 5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벼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9월까지 영농철 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 다습한 기상 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 안전한 보행환경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전라남도 화순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PM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토록 했다.

PM 공유업체와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신기교차로 인근 △화순군청 빗물정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화순우체국 △한양립스 아파트 △화순문화원 인근 △제일중학교 후문 △화순중학교 △부처샘공원 △서라4차 아파트 등 10개소로 총 1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PM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용 주차장 조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도 더욱 편리하게 PM을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군, 여름철 대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계획

전라남도 곡성군이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3주간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촌관광시설로 지정된 총 96개소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농어촌민박 5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63개소의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1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등 취약시설 15개소는 만·관 합동 전문점검반을 통한 정밀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곡성군 공무원 2명과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소화기와 단독화재경보기 등 일부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 및 교체토록 조치했다. 또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군은 오는 6월 중순까지 읍·면 담당 부서와 협력해 남은 농어촌민박 42개소와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 전기 설비의 이상 유무, 가스 누출 및 취급 실태 등 주요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전수 점검을 마무리



곡성군청 직원들이 관내 한 농촌관광시설을 찾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곡성군은 6월 중순까지 관광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곡성군 제공

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

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가가호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가족 구성원 대상… 28일까지 접수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수강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 간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 언어사전(문학)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인문학 요가) △싱싱(SING SING) 패밀리(뮤지컬, 연극) △다다국악(多多國樂) △너와 나의 마음 다시 써내려 가기(복합 예술) △찰칵! 우리 사이(시각, 사진) △토닥토닥, 나무의 숨결(공예, 목재)로 구성됐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프로그램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우리 가족 언어사전’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언어 사전을 만들어보는 문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집 대상은 부모와 자녀

(초등 4학년 이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7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화순군 ‘청춘들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교육비, 재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8839-6130)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종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가가호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상호 이해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화순군의 다양한 가족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 귀농인 안정 정착 위한 농업 창업 주택 구매 융자 지원

전라남도 함평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함평군은 3일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19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차보전 융자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억원의 농업 창업 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 구매 및 신축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 활동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에 주택 신축도 가능해져 귀농인 정착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061-320-21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